

성령의 증거

고 재 수*

서 론

성경에 대한 성령의 증거에 관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거로 말미암아 성경의 고귀함에 감동되고 인도될 수 있다. 또한 그 내용의 지상성, 교회의 효과성, 문체의 장엄성, 전 부분의 일관성, 그 전체적 목적(곧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는 충분한 발견, 그 밖에 많은 비할 수 없는 탁월성, 그 전적 완전성 등은 성경이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풍부하게 증거해 주는 논증들이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그 무오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설복과 확신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부터 생긴다.¹⁾

이를 볼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세가지 증거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교회의 증거, 성경자체의 증거, 성령 증거이다. 이 중 교회의 증거는 도입적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의 인도를 받아 성경의 권위를 알게 된다. 교회의 증거의 결과로써, 우리는 성경을 고귀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귀함 그 자체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는 못한다. 또한 교회의 증거가 그러한 고귀함을 가져다 주는 일은, 가능하겠지만 그 결과까지 확실히 보장하지는 못한다.

성경 자체 증거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보여 주기위해 여러가지의 매우 무거운 논증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자체 증거는 우리의 확신을 이루지 못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은 성령의 증거만이 생기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령의 증거가 성경 외에 달리 계시하신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은 1장 6항에 나타나고 있다.

*부교수, 이론신학 전공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5항, 번역은 필자 본인에 의함, 원문참조, Ph. Schaff, *Creeeds of Christendom* III 4 (repr.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7) 602f.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에 의하여 어느 때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성경에) 첨가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성령의 증거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왜 성령의 증거가 필요한 것인지, 또 왜 이것이 증거라 불리는지가 신앙고백서 상에 명백히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문제들을 더욱 상세히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 문제를 답하려면 우리는 칼빈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신앙고백은 칼빈의 가르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I) 다음으로는 칼빈 이후의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를 간략히 제시하려 한다. (II) 그 다음 인용된 성경 본문들을 살펴본 후에 (III), 마지막으로 성령의 증거란 이 교리가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IV)

I. 칼빈의 견해

1.

칼빈은 이 주제를 성경의 권위에 대해 논하는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기독교 강요, I, vii)²⁾ 성경은 그것이 하늘로부터임을 확신할 때에만이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확신은 교회가 주지 못한다. 만일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확신은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겠기 때문이다. (I, vii, 1) 칼빈은 엡2:20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성경에 달려 있음을 주장한다. (I vii 2)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논리상 증명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양심에 가장 잘 대처코자 한다면... 우리는 인간적 논증이나 판단이나 추측 이상의 곳에서 우리의 확신을 찾아야만 한다. 곧 성령의 비밀한 증거에서이다.” (I vii 4) 또한 “성령의 증거는 모든 논증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위한 마땅한 증인이 된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 말씀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인쳐지기 전까지는 인간의 마음 속에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I vii 4) 이에 이어 I, viii에서 칼빈은 성경의 신적 원천에 관한 많은 논증을 제시하고, I, ix에서는 그가 열성주의자라 부르는 재세례파 사람들의 성경과 성령에 관한 잘못된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이를 볼때 칼빈은 어떤 방식으로 성경의 권위를 증명하려 하는가? J. B. Roger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 필자가 사용한 라틴어 원문은 *Ioannis Calvini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ed. A Tholuck; Berolini: Apud Gustavum Eichler, 1834) 영어 번역은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l. Ford Lewis Battles; 2 vol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신학자들은 성령께서 성경 안에서 인간의 주 그리스도를 알아 보도록 그의 눈을 띄워 주시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았다.³⁾

또 그는 칼빈의 견해도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의 견해와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⁴⁾ 그러나 Rogers는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을 오해했다. 여기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신적 원천인 것이다. 칼빈은 이점에 대한 결론적 언급으로 이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그(성령)의 능력에 의해 조명되어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판단을 너머, 우리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인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로 흘러왔다는 사실을 전적인 확실함으로 주장한다. (I vii 5)

그래서 칼빈은 성경의 권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 성경이 우리 삶에 대해 가지는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2.

성령의 증거라는 말에 대하여 여러 신학자들은 성령이 어떤 사실 즉,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직접 우리 마음에 말씀하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경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 즉, 성경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성령님이 성경 외에 어떤것을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심을 말하지는 않는다.

첫째로 칼빈은 성령의 증거란 표현뿐만 아니라 다른 표현도 사용했다. 성령이 우리를 설득하도록 우리 마음 속에 ‘침입’해야 한다는 말을 사용한다. (I vii 4) 또 고후 1:22에 나오는 “인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칼빈은 성령이 인침과 보증이라 말하기도 한다. 같은 문장 속에서 칼빈은 또 다른 표현 곧, “성령이 지성을 조명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I vii 4 참고 I vii 5, 딤후3:16의 주석)

인침 자체는 어떤 복음의 내용에 아무 말이라도 더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눈의 어두움을 제거하는 빛은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다른 표현들은 성령이 인간의 마음속에 성경에 없는 어떤 것을 계시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님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이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인 것이다.

3) J. B. Rogers, *Scripture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Kampen, Kok, 1966) 324.

4) *Ibid.*, 325.

둘째로 칼빈은 I ix 1에서 성령의 임무는 새롭고 들어 본 적 없는 계시를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라, 복음이 제시한 교리를 우리의 마음에 인치시는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칼빈은 성령의 증거가 성경에 없는 어떤 것을 계시하심이라는 입장을 직접적으로 반대한다.

칼빈은 성령이 어떻게 증거하시는지 우리가 명백하게 알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비밀한 성령의 증거라고 말했다. (I vii 4) 칼빈은 모든 신자가 그것을 경험한다고 하였고 이것을 그의 말로써 올바르게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I vii 5) 칼빈의 의견을 요약해 보자면, 성령의 증거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또 우리는 성령님이 어떻게 증거하시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는 성령님이 증거하신 사실을 알수 있다.

3.

칼빈은 이 문제를 다른 곳에서도 다루겠다고 말하므로(I vii 5) 우리는 그의 견해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도 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칼빈은 성령의 증거라는 주제를 매우 넓게 사용하였다.⁵⁾ 그 증거가 확인해 주는 것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 ① 성경 신적 원천(I vii 4, 5, 딤후3:16 주석, 참고 요일2:27 주석)
- ② 그리스도의 씻음과 희생(III i 1 요일5:8주석)
- ③ 구원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III ii 41)
- ④ 하나님의 양자됨(III xxiv 1, 롬8:16, 갈4:6, 엡1:13, 요일2:19, 3:24, 약1:25, 참고, 고전 2:12)
- ⑤ 하나님의 진리, 특히 그리스도에 관하여(요15:26, 고전1:6, 요일2:27)
- ⑥ 그리스도의 부활(롬1:4)
- ⑦ 선택(롬8:23, 고전1:9, 벨전1:1, 2)
- ⑧ 구원에 관한 온전한 교훈(고전2:10), 복음의 교훈(고전2:11)
- ⑨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말씀(고후1:20, 5:5, 엡1:14, 참고, III ii 35~37)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증거하시고 그 중 특별한 주제도 증거하신다는 것이다. 이로 보건데 우리가 특별히 연구하고자 하는 성경과 관련된 성령의 증거는 그의 모든 증거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W. Niesel은 이것이 칼빈의 입장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임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속에 감추인 채로 있는 한 말씀에 민감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는 기록된 말들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이해를 위해 그것들을 살아나게 해야만 한다⁶⁾”

5) S. P. Dee, *Het geloofsbegrip bij Calvin* (Kampen: Kok, 1918), 136; W. Krusche,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of Calvin* (Berlin, 1957) 212.

6) W.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transl. H. Knight, repr. Grand Rapids: Zondervan, 1980)39.

고 말한다. 이는 칼빈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씀과 성경의 말씀 간의 바르트식 구분에 근거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칼빈에 의하면 성령의 증거는 성경의 말씀 속에 숨겨진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된 내용에 대한 것이다. 또 니젤은 성경에 대한 성령의 증거가 성경의 신적 원천을 향한다는 칼빈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4.

왜 성령의 증거가 필요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니젤과 동의하지 못한다. 니젤은 칼빈의 의견을 이같이 제시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육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이 성경의 궁극적 주제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 보게 되는 그의 증인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신의 꿰뚫는 말씀이 되게 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야만 한다. 여기에 성령의 기적적 작용이 있다.”⁷⁾ 그렇다면 성령의 증거는 성경의 내용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성경의 내용이 우리가 스스로 파악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령의 깨닫게 하는 특별한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칼빈은 이 문제를 다르게 표현했다.

만일 우리가 그것(성경)을 향하여 순수한 시각과 곧은 감각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의 위엄은 즉각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고, 우리의 대담한 거부를 억눌러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할 것이다. (I vii 4)

이를 볼때 깨닫지 못함은 인간 편에 문제가 있어서이다. 곧 사람에게 순수한 눈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은 딤후3:16의 주석에서도 잘 표현되었다.

비록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지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눈 밝혀진 사람 외에는 없다. 이 사람들만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도록 되어 있지만 선택된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된다.

기독교 강요 III ii 33 이하에서 칼빈은 이 생각을 보다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의 진리에 한번도 결합할 수 없을 만한 헛된 것에 쏠려 있고, 그 침체된 상태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항상 어둡기만 하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 없이는 성경으로 인하여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III ii 33)

이상에서 보듯이 성령의 증거의 필요성은 인간의 타락 때문이다. 죄 때문에 우리의 정신은 빛을 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영이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

7) *Ibid.*, 36.

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것이라도, 예를 들자면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인 것조차 받아 들이지 못하게 된다.

5.

이제 칼빈이 이성적 논증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짐을 부인하는 사실에 돌아와 보자. 칼빈은 왜 이성적 추론 위에 근거한 믿음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칼빈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쉽게 이를 반박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비판자의 말로부터 분명하게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바로 그들의 마음 속에 경건이 요구하는 확신을 즉각으로 새겨 주지는 못할 것이다. (I vii 4) 다시 말해서 논증으로서는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확신을 주지 못한다고 칼빈은 생각하고 있다. 논증들은 다만 하나의 가능성에 지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기댈 수 있는 논증이나 가능성을 찾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통찰을 우리의 불확실한 평가 너머에 있는 것으로서의 성경에 복속시키는 것이다. (I vii 5)

우리의 사유는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논증에 의해 부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경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확실은 합당치 못하다. 경건은 절대적 확신을 요구하고 또한 우리의 실수할 수 있는 사유에 근거하는 것이어서도 안된다.

칼빈은 이같은 생각의 배경을 다른 곳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정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조명 받더라도 그 분의 능력으로 마음이 강하게 되고 지탱되지 못한다면 이것 만으로 충분치 못하다. 이점에 있어서 중세 신학자들은 완전히 실수하고 있다. 믿음에 있어서 그들은 마음의 자신과 확신을 버리고 지혜에서 비롯되는 단순한 동의에 의해 쉽게 빠져 들고 만다. (III ii 33)

그래서 칼빈은 이처럼 지성과 마음 사이에 구분을 두고 있고 믿음은 지성에뿐만 아니라 마음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지성에만 있어야 한다면 논증으로 납득시킨 사람을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지성에 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논증 외에 다른 것 즉, 성령의 조명 또한 성령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6.

성령이 어떻게 확신을 주는지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B. B. Warfield는 성령이 성경의 여러가지 자체 증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과 확신을 주는 것으로 말한다. 워필드에 의하면 “성경의 신성의 이러한 표시들을 통해 영혼은 성령의 증거 사역 아래에

서 성경에 대한 건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칼빈이 심중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⁸⁾

필자는 이 설명이 바른 것인지를 의심한다. 왜냐하면 칼빈은 성경의 자체증거를 I, viii에서 다루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I, vii에서 성령의 증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워필드의 설명은 칼빈의 순서와 맞지 않다. 워필드는 칼빈이 성경의 지고의 증거라 지적한 것을 무시했다.

성경의 지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서 끌어낸 것이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들의 예리함이나 또한 그들이 말함에 있어서의 자신들의 신뢰성을 자랑하지 않는다. 또 논증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온 세상이 순종토록 하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앞세우고 있다. (I vii 4)

그래서 칼빈에 의하면 성령은 성경이 말해 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간의 마음에 확신을 이루신다. 또 신자는 성경의 신적 원천에 대한 직접 증거를 통해 확신을 받은 후에 성경에 나오는 간접적 증거를 받아 들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칼빈은 먼저 성경의 지고의 증거를 다룬 후에 I, viii에 가서 간접적 증거를 (독특한 장엄성, 인상, 고대성 등)을 다루고 있다.

7.

칼빈이 왜 이처럼 성령의 이름을 증거와 관련시키는지 질문할 때 그 대답은 성경의 표현 속에 나타난다. 요일5:7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하는 표현에 기인한다. (참고, III i 1) 또 인침과 보증도 성령과 관련 하에 사용된 성경의 표현이다. (고후1:22, 참고 I vii 4) 칼빈의 확신은 신자들 속에 믿음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므로(III i 3) 성경에 관한 증거도 성령의 사역이라는 사실이다.

칼빈은 이같은 사역을 항상 성령의 이름과 결부시킨다. 예를 들어 요6:44, 45의 “성부가 이끄셔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그 본문을 적용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리지 않으면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다”라고 했다. (III ii 34) 또 칼빈은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사람들을 이끄실 때 성령으로 하신다고 말한다. (III i 4, 참고, 고후2:10) 성령의 증거의 배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은 각각 특수한 역할을 가졌고 그 중 성령의 특수한 역할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이 믿음에 포함되는 성경의 신적 특성에 관한 확신을 주시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할이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적용하시는 일이므로 성경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할을 칼빈이 강조하였던 것이다.

8) B. 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ed. S. G. Craig;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repr. 1980) 89.

8.

마지막으로, 성령의 증거는 믿음에 속하는 것인데, 칼빈은 오직 선택된 사람만이 그 증거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유일한 참된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인치신 것임을 알아야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으로부터 그가 분리해 내신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그 특수한 특권을 베푸신다. (I vii 5, 참고, III ii 35, 딤후 3:16, 고후2:12)

이의 결과로서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어떤 선한 사람들은 경건치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별도 받지 않고 중상하는 일을 볼 때 명백한 증거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없어서 화가 난다고 칼빈은 말한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칼빈은 성령을 인침과 보증으로 부르는 본문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한다.

성령께서 지성을 비추시기까지는 사람들이 항상 많은 의심들 사이를 오간다. (I vii 4)

그래서 신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확실히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없는 것이라라고 칼빈은 주장한다.

II. 다른 견해들

이제 성령의 증거에 대한 네 가지의 다른 견해를 제시하려 한다.

1.

감리교의 창시자인 John Wesley(1703-1791)는 성령의 증거란 말을 칼빈과 다르게 사용한다. 필자가 연구할 수 있는 한 웨슬리는 성경과 관련하여 성령의 증거를 언급하지 않는다. 또 이런 일이 그에게는 필요없는 문제인 것 같이 보인다. 웨슬리는 “성경의 신적 영감의 명백하고 간단한 증명”이란 글을 썼다.⁹⁾ 웨슬리에 의하면 지성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지성적 논증으로 충분히 성경의 신적 원천을 증거할 수 있다면 성경에 있어서 성령의 증거는 불필요한 것이다.

이점은 웨슬리의 “편벽없이 고려된 지성의 문제”라는 설교에 사실로 나타나 있다.

9) *The Works of John Wesley* 3 (reprint of the edition of 1872, ed. by the Wesleyan Methodist Book Room, London 1872; Grand Rapids: Baker, 1978) XI, 484; R. W. Burtner, R. E. Chiles (edds), *John Wesley's Theology: A Collection from his Works* (Nashville: Nelson, 1983) 19f.

웨슬리는 그 설교에서, 성령으로 도움 받은 지성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그의 자녀들과의 하나님의 교제, 회개, 믿음, 칭의 등에 관해 성경이 말하는 것을 파악한다고 말한다.¹⁰⁾ 이 항목들 중에는 성경의 신적 원천이란 문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더군다나 이점에서 성령의 도움조차도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성령의 증거란 문제가 웨슬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감리교 표준설교 중 두 개의 설교가 성령의 증거에 관한 것이다. 그 설교에서 웨슬리는 성령의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성령의 증거란 영혼에 대한 내적 인상인데 이 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은 나의 영에 즉각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과, 나를 위하여 당신을 바치신 것과, 나의 모든 죄를 씻은 것과 나 같은 자라도 하나님과 화목된 자인 것을 증거하신다.”¹¹⁾

이를 볼 때 웨슬리와 칼빈 간의 첫번째 차이점은, 성령의 증거가 칼빈에 있어서는 웨슬리보다 훨씬 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웨슬리는 성경에 있어서 성령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고 다만 합리적으로 그 신적원천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H. Bavinck는 18세기의 합리주의가 지성으로 하여금 계시의 진리성을 연구하게 하고, 성경의 권위를 역사적 증거 위에 수립했다고 말한다.¹²⁾ 그렇다면 웨슬리도 성경에 대해서는 이같은 합리주의에 속한다.

칼빈과 웨슬리의 두번째 차이점은 성령의 증거 방식에 대한 웨슬리의 견해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어떤 외부적인 소리로 또는 내적 소리로(비록 성령님이 종종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항상 증거하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 그는 항상 하나나 또는 그 이상의 본문들을 마음에 적용시키는 것도 아니다. (비록 그가 가끔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반면에 그는 즉각적인 영향과 또 강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작용을 통하여 폭풍과 거친 물결이 자고 달콤한 고요가 있도록... 역사하신다.”¹³⁾ 웨슬리는 이러한 묘사를 실제 경험에서 얻었다. 물론 그는 성경에서 롬8:16을 인용하긴 하지만 실상 그 본문은 여러가지의 방식에 대하여 언급하는 본문이 아니다. 웨슬리 자신은 울더스게이트 경험에서 뜨거움을 체험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소리나 성경 본문을 들었다고 말한다.¹⁴⁾

칼빈은 내적 소리와, 특별한 성경 본문을 적용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또 칼빈은 고요함이나 평안에 대해서도 달리 표현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절하시고

10) “The case of reason impartially considered”, in *Ibid.*, VI, 354f.

11) “The testimony of the Holy Spirit I”, in *Ibid.*, V, 115; “The testimony of the Holy Spirit II”, in *Ibid.*, V, 124f.

12) H.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4 (Kampen: J. H. Kok, 1928) I, 553f.

13) *The Works of John Wesley* 3, V, 125. 비교 A Letter to Mary Cooke, in *John Wesley's Theology*, 94f.

14) 울더스게이트 경험에 대해서는 참고 *The Works of John Wesley* 3, I, 91ff; 하나님의 자녀의 경험에 대해 다음도 참조하라 “The testimony of the Holy Spirit II”, *Ibid.*, V, 128.

호의를 가지신 아버지라는 사실에 확실히 설복되어 그의 자비의 근거로 모든 것을 스스로 약속하는자,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신적 자비심의 약속에 의지하여 의심할 바 없는 구원의 기대를 굳게 잡는 자만이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있다.”(III ii 16)¹⁵⁾

칼빈과 웨슬리 간의 차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가 체험한 성령의 증거에 달려있는 것인데 반해, 칼빈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성령의 증거의 역할은, 우리 자신으로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지만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이 약속들을 보고 받아들이게 하는데에 있다.(III ii 16)

두 사람 사이의 차이를 보다 명료하게 밝히기 위해 칼빈과 웨슬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말하겠다.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답함에 있어서 칼빈은 “빛과 어두움, 흰 것과 까만 것, 단 것과 쓴 것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느냐는 질문과 같은 류의 질문”이라고 말한다. 흰색과 까만색이 그 색깔을, 단 것과 쓴 것이 그 맛을 나타내는 것보다 성경은 자체의 진리를 보다 명확한 증명으로 나타낸다고 말한다.(I vii 2) 즉 성경 그 자체가 스스로 신적임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받아 들이지 못하는 것이므로 성령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참된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정과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낮과 밤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빛과 어두움을, 또는 별이나 촛불의 빛과 낮의 햇빛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나와 다른 것 사이에는 내적이고 명백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은가... 이처럼 영적 빛과 영적 어두움 간에는 내적이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¹⁶⁾

이상의 예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이들이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면서 동시에 다른 것에 적용되는 예인 것을 알 수 있다. 칼빈은 성경이 신적임을 나타내는데 반해 웨슬리는 우리가 체험한 성령의 증거가 신적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 웨슬리와 칼빈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의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사실에 의지할 것이냐(칼빈),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특별한 말씀이나 평안을 주신 것에 의지할 것이냐(웨슬리)의 문제인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체험 중 어떤 것을 신뢰할 것인가? 성경은 이 점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할 것이라고 명백히 대답해 주고 있지만(예를 들어 롬 4 장, 히 11 장), 여기서 구원론에 속하는 이 문제를 더 자세히 다룰 수는 없다.

성경과 성령의 증거에 있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뚜렷함을 보았다. 첫째로 성경도 성령의 증거를 필요로 하느냐, 둘째로 성령의 증거란 성령이 직접 사람에게 말씀

15) 이 사실에 대해서는 기독교강요 III ii 16, 17이 전체적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16) “The testimony of the Holy Spirit I”, Ibid., V, 121.

하심을 의미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차이인 것이다.

2.

Fr. Schleiermacher(1768-1834)는 성령의 증거란 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 신학자 때문에 성령의 증거란 말의 의미가 바뀌어 졌다.

성경론에 대한 슐라이어마허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성경의 존경(Ansehen)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기초를 둘 수 없고, 도리어 성경을 위하여 특별한 존경을 허락하기 위해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¹⁷⁾

당시의 신교 신학자들은 자주 논리적 추론을 통하여 성경의 신적 존경을 증명하려 했다. 슐라이어마허는 이에 대한 두가지 반대를 제시한다. 1) 만일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직접 믿을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논리적 추론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성경의 신적 특성을 직접 증거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능력에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 회개와 개심없이 성경의 신적 특성을 증거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¹⁸⁾

이 두가지 반대는 옳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슐라이어마허의 성경관에 동의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는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근거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성경의 권위의 근거인가 사이에 하나의 양자택일의 가능성만을 두고 있지만,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성경의 특징을 동시에 알리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슐라이어마허처럼 성경에의 존경이 믿음에 의존하다고 볼 때 결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증거할 수 없게 되고 만다. 그의 출발점은 성경이 아니라 기독교적 경건이다. 교회안에는 공통의 영(Gemeingeist)이 있어서 기독교적 경건과 상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슐라이어마허의 영감 사상을 다룰 처지가 못되지만 간단하게 네가지 점만을 지적해 보겠다.

① 성령은 서로 다른 양만큼씩 베풀어 졌는데, 이에 따라서 사도 시대에 여러 정경 및 가경서들이 생겨났다. 성경의 인도 아래에서 가경서들이 점차로 교회안에서 제외되어졌고 정경서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졌다. 하지만 정경적 성경 중에서도 우연한 표현과 지엽적 문제들은 주된 내용만큼 표준적이지 못하다.

②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들었기 때문에 복음서와 서신서에서는 모든 세기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다. 이의 결과로 슐라이어마허는 구약을 무시하고¹⁹⁾ 신약은 교회 안에서 유일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본다. 그 이후

17) F. Schleiermacher, *Der Christliche Glaube nach den Grundsätzen der evangelische Kirche im Zusammenhange dargestellt*, §128. 필자가 사용한 판본은 Gotha: Friedrich Andreas Perthes, 1889 IV, 15.

18) *Ibid.*, §128, 1.

19) *Ibid.*, §132.

의 발전은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사도와 신약 기자들 속에서 활동하신 공통의 영은 근본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오늘날의 신자와 교회 속에 활동하신다.²⁰⁾

④ 그래서 “모든 시대에 성경을 인하여 생겨나고, 기독교 신앙으로 스스로 주장되어 지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참되고 원천적인 의견의, 그 당사에 적합한 발전이며, 이는 또한 그 당시, 그 장소에서 공통적인 올바른 기독교적 믿음을 구성한다.”²¹⁾

요약해서 말하자면 어떤 특별한 순간에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을 통하여 일어난 지식이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인데, 이는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또 슬라이어마허를 따르는 신학자들은 그 지식을 성령의 증거로 부른다고 Smeaton교수는 말한다.²²⁾

칼빈과의 차이를 두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① 성령의 증거란 성경의 신적 성질을 확실히 인정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믿음의 내용이다. ② 성령의 증거가 개개인 속에서 그것을 확실히 인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의 교회 속에서 활동한다는 것이다.²³⁾

3.

L. Berkhof(1873-1957)는 대체적으로 칼빈과 가깝게 성령의 증거란 주제를 다루었다. 예를 들어 그는 성령의 증거가 구원에 관한 성령의 일반 사역중의 특수한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예이다. 성령의 사역은 인간이 그리스도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들이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믿음의 확신에 이르도록 가능케 해 주시는 일이다.²⁴⁾

또 벌코프는 칼빈과 같이, 신앙이 교회의 증거에 달려 있다는 천주교의 입장을 반대하고, 또 성령의 증거가 새로운 계시를 의미한다는 재세례파의 입장도 반대했다.²⁵⁾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의 증거를 체험에서 끌어낸 논증이라 보는 19세기 신학자들의 입장에도 반대한다. 그는 믿음이 신적인 것임과 또 믿음이 성령을 통하여 생긴 것이므로 성경 자체도 신적이어야 한다는 논증이 옳다고 말하고는 있지만,²⁶⁾ 그것과 성령의 증

20) *Ibid.*, §129; §§130, 131.
 21) *Ibid.*, §131, 2; 비교 §129, 2.
 22) G. Smeaton, *The Doctrine of the Holy Spirit 2* (repr. 4 Guildford, London: Banner of Truth, 1974) 402.
 23) ‘공통의 영’에 관하여는 참고, W. Brandt, *Der Heilige Geist und die Kirche bei Schleiermacher* (Zürich, 1968) 168ff.
 24) L. Berkhof,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1932, repr. 2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1) 183.
 25) *Ibid.*, 185, 184.
 26) 필자는 벌코프가 이같은 논증을 인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 성령이 믿음을 이루시는 사실과 또 성령이 그것을 성경을 통해 행하시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 성경이 신적이라는 사실이 논리적 결과로서 따라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성경의 신적원칙은 성경없이 논리적으로 증거할 수 없고, 성경의 자체시를 통해서만 증거할 수 있을 뿐이다.

거가 같은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① 체험에서 이끌어낸 논증은 믿음을 따르는 것이긴 하지만 성령의 증거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며, ② 체험에서 끌어낸 논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주는 것이기 때문이며, ③ 체험에서 끌어낸 논증은 함축적인데 반해 성령의 증거는 성령의 직접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⁷⁾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벌코프가 논의 과정에서 두가지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는, 벌코프는 성령의 증거란 주제를 ‘인식의 내적 원리’라는 제목 아래에서 다루었다.²⁸⁾ 인식의 내적 원리라는 표현은 일종의 지식론이며 인식의 외적 원리에 대비되는 말이다. 가령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일, 곧 외적 원리와 우리가 그것을 받아 들이는 일, 곧 내적 원리가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외적 원리와 내적 원리는 상호작용한다. 이와같이 벌코프는 성경의 우리 밖으로부터의 하나님의 계시를 언급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적 조명도 언급한다고 주장한다.²⁹⁾ 그러나 벌코프는 그 후에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증거란 말로 더 넓게 다루면서 성령의 증거란 죄인의 마음 속에서 죄로 인한 눈먼 상태를 제거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한 특성을 보지 못하는 전에 멀었던 눈을 이제 성경의 신적 성질의 표를 잘 보고 받아 들이며 성경의 신적 원천에 대하여 직접 확신을 받는다는 것이다.³⁰⁾

위 두가지가 같은 것이 아님을 낙원 상태를 고려할 때 알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성령의 증거가 필요했겠는가? 지식론의 입장에서 그때도 외적 계시 외에 내적 조명이 필요했다면 성령의 증거도 있어야 했다. 그러나 오히려 죄 때문에 성령의 증거가 필요한 것이라면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때 그것을 바로 신적인 것으로 받아 들인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벌코프가 H. Bavinck와 칼빈을 그대로 연결시켰기 때문이다.³¹⁾ 벌코프는 바빙크의 순서를 좇아, 지식의 외적 원리와 내적 원리간에 구분을 두었다. 이 결과로 성령의 증거를 지식론의 배경에 두게 된 것이다. 한편 벌코프는 성령의 증거의 의미면에 있어서는 칼빈을 따랐다. 이 때문에 순서와 내용이 잘 맞지 않고 모순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둘째로 벌코프는 성령의 증거를 ‘신앙의 기반’(ground)이란 주제 아래에서 다루고 있다.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성경에 내포된 하나님의 증거가 진실이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할만한 것임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안에 우리의 신앙이

27) *Ibid.*, 184.
 28) *Ibid.*, 170ff: The principium cognoscendi internum.
 29) *Ibid.*, 181.
 30) *Ibid.*, 185.
 31) 성령의 증거에 대한 바빙크의 견해를 알려면 참고, N. H. Gootjes, *Het getuigenis van de Heilige Geest in verband met de Schrift*, in *Radix* II, 4 (1985) 199 ff.

근거하는 기반은 무엇인가? 보다 잘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진리에 대한 확신은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수단으로 이루어 지는가?³²⁾

몇 페이지를 넘겨서 벨코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것에 관하여 성경 속에 주시는 증거를 근거하여 신자는 성경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의 수단을 통해 그 말씀을 신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엄밀히 말해서 성경의 증거한 신앙의 근본적 기반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의 수단인 것으로 말한다.³³⁾ 후자의 입장은 칼빈주의적이다. 기반이라는 말은 믿음이 그것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믿음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기인한다고 말 할 수 있겠다. 성경의 증거가 믿음의 기반이라면 믿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그 밖의 성경의 증거에 기인한다는 점을 포함한다. 그럴 경우 계시는 두가지가 되는 셈인데 하나는 성경이요 또 하나는 성경의 증거가 된다. 하지만 칼빈주의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증거가 믿음의 기반이라는 표현은 사용될 수 없는 말이다.³⁴⁾ 벨코프는 이점을 인정하면서도 계속해서 성경의 증거란 주제를 신앙의 기반이라는 제목 아래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이전의 신학자들이 신앙의 기반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칼빈의 입장과 잘 맞지 않음을 알고서도 성경의 증거를 신앙의 기반이란 제목 아래에서 다루는 일은 혼동을 일으키는 일이 된다. 벨코프는 이점에 있어서도 다른 자료에서 이끌어낸 입장들을 그대로 연결시켜 사용함으로써, 주제와 내용 간에 모순을 야기시키고 있다.

4.

G. C. Berkouwer(1903-)는 성경관을 다루는 그의 책 속에서 성경의 증거를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다.³⁵⁾ 벨카우어는 여기서 자주 칼빈을 인용하면서 칼빈을 따르려 한 것 같다. 그는 칼빈이 성경의 증거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사도의 증거의 내용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 약속, 양자삼음과도 관련시키고 있음을 강조한다.³⁶⁾ 또 그는 성경의 증거가 내적 목소리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증거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³⁷⁾

32) L. Berkhof,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182.

33) *Ibid.*, 185.

34) H.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I, 568; S. Greijdanus, in *Almanak "Fides Quaerit Intellectum"* 1948 (Kampen: Zalsman, 1948) 117f; G. C. Berkouwer, *De Heilige Schrift I* (Kampen: J. H. Kok, 1966) 52f; J. Kamphuis, *Aantekeningen bij J. A. Heyns' dogmatiek* (Kampen: Van den Berg, 1982) 20.

35) G. C. Berkouwer, *De Heilige Schrift I*, Ch. II, 41ff; English translation: *Holy Scripture* (translated and edited by Jack B. Rogers; Grand Rapids: Eerdmans, 1975) Ch. II, 39ff.

36) *Ibid.*, 71.

37) *Ibid.*, 60, 75.

벨카우어가 성경 증거의 문제를 다루는 특징적인 점은 성경의 증거를 항상 '성경신앙'(schriftgeloof)과 관련짓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 주제를 다루는 그의 책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한다. "성경신앙과 관련하여서의 성경의 증거에 대한 고백이 항상 주목을 받아 왔다"³⁸⁾ 조금 아래에서 벨카우어는 성경신앙을 비인격이나 또는 대상적인 것으로 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자신도 이에 동의하는 것 같다. 벨카우어에 의하면 신약에는 성경의 증거에 대한 고백이 그리스도안에 있는 진리와 구원에 관련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대하여도 말해진다고 한다.³⁹⁾

벨카우어는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의 증거도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으로 향한다고 항상 주장한다.⁴⁰⁾ 또한 그는 신적 증거를 인간적 체험으로 제한하는 잘못에 반대하면서 성경 증거에 대한 개혁주의적 고백이 확신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의 길을 지시한다고 말한다. "이같은 믿음의 길에 있어 성경의 증거는, 그 자체 무력하고 능력없는 말씀의 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의 묶음, 곧 계속해서 더 밀접하게 묶여짐을 의미한다."⁴¹⁾

이상의 인용을 살펴볼 때,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벨카우어의 논술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자체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이다. 벨카우어가 말하는 소위 성경신앙이란 그리스도 없는 믿음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우리는 이 강조점에 동의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관련된 분은 하나님이 다.

그런데 이의 결과로 벨카우어는 성경의 증거도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관련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칼빈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벨카우어는 성경의 증거가 칼빈의 책들 속에서 넓게 쓰여진 것을 잘 보면서도 그 자신은 그것을 칼빈보다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칼빈은 성경의 증거란 교리를 성경의 여러 내용과 관련하여 사용하는데 반해 벨카우어는 성경의 증거를 한가지 즉, 성경의 의도 곧 그리스도에만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로서 성경에 있어서도 칼빈과 벨카우어는 성경의 증거란 교리를 서로 다르게 이해한다. 칼빈에 의하면 성경에 있어서 성경의 증거는 성경의 내용인 그리스도와 관련되기 보다는 오히려 성경의 신적 원천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두 사람의 차이는 벨카우어가 칼빈을 인용한 한 예에서 잘 설명되어 진다. 벨카우어는 성경의 진리의 최고의 증명은 하나님 자신의 인격으로부터 도출된다고 칼빈을 인용하고 있다.⁴²⁾ 그러나 칼빈이 말하는 바는 "그래서 성경의 최고의 증명은 말씀하시는

38) *Ibid.*, 41 (E. T., 39).

39) *Ibid.*, 66 (E. T., 52f.)

40) *Ibid.*, 56, 58, 69, 73.

41) *Ibid.*, 76 (E. T., 61)

42) *Ibid.*, 73 (E. T., 58)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자주 도출된다”는 것이다. (I vii 4) 칼빈의 강조점은 하나님 자신이 성경 내용을 말씀하셨다는 점인 반면, 벨카우어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과 방향이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이라는 점이다. 이의 결과로서 성령의 증거는 칼빈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신적 원천과 관련되고 벨카우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된다.

또한 칼빈이 말한 바 성경에 대한 성령의 증거의 핵심인 신적 원천은 벨카우어에게서는 전혀 찾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문제는 성령의 증거란 성경의 내용인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원천과도 관련시킬 수 있는냐는 점이다.

III. 성경적 근거

이제 성령의 증거란 교리가 어떻게 성경에 근거된 것인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교리를 제시함에 있어서 사59:21을 증거로 인용하고 고후1:22에 나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5항에는 요일2:20, 27, 요16:13, 14, 고전2:10-12, 사59:21이 인용되고 있다. 성령의 증거와 관련되어 인용되는 또 다른 본문은 요16:8-11, 롬8:16, 고전2:14, 15, 요일5:6이다. 아래에서 이 본문들 모두를 간단하게 검토해 보려한다.

1.

사59:21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사이에 언약이 있다고 할때 이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성취하시려고 스스로에게 의무를 지우심을 말한다.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의 신 곧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다. 문맥상 그 말씀이란 특히 20절에 언급된 구속자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다.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떠나지 않으리라는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구속자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 할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큰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이나, 백성 중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20절)가 이 말씀을 잊어 버릴 수 없게 하시기 때문에 후손들이 영영토록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말씀과 관련되어 영이 언급되었다. 그 영은 그들 위에 두신 것인데, 하나님이하늘로서 주신 영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오순절 사건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내용은 그 영이 이미 이사야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위에 계신 영이기 때문이다. 그 영이 하실 일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

실 것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성령이 왜 이스라엘 위에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본문에 따르면 성령에 관한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할 것에 대한 약속과 관련된 것이다.

칼빈은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 뿌리 박게 하신다고 말하며 E. J. Young은 그 영이 교회를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한다.⁴³⁾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둘 다 본문으로 증거할 수는 없는 대답이다. 본문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위에 계시는 것을 말하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 주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성령이 구약부터 영영토록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둘 다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2.

요16:8-15은 7절에 나오는 보혜사에 관한 약속을 설명하는 본문이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세상과 관련하여서 성령의 사역이 언급되고 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라는 말은 보혜사인 성령이 오순절에 오심을 의미한다. 또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할 때 그 방식은 우선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다. 같은 강화에 속하는 15:26, 27은 성령의 증거와,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증거를 언급한다.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실이 마10:20, 막13:11, 행4:8 등에 나타난다. 우리는 그 증거를 특히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이미 받았고, 현대의 교회는 이를 설교해야 하겠다.

하지만 이 본문은 듣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내용을 받아들일게 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 ‘책망하다’(ἐλεγχεται)은 어떤 것을 증명함을 의미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할 수도 있다.⁴⁴⁾ (참고 마18:15, 눅3:19) 결론적으로 요16:8-11의 본문은 성령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 의, 심판을 나타냄을 의미하지만, 칼빈이 생각한 것처럼, 성령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받아 들이게 하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를 위하여 사역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13절) 여기서 이 본문을 길게 다룰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여러번 증명한 바처럼 여기서 너희란 제자들을 가리킨다.⁴⁵⁾ 성령의 인도를 통해 제자들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었다. (엡2:20)

43) Edward J. Young, *The Book of Isaiah* III 3 (Grand Rapids: Eerdmans, 1977) 442f.

44) F. W. Grosheide, *Het heilig evangelie volgens Johannes* ii (Amsterdam: H. A. Van Bottenburg, 1950) 370; B. F. Westcott,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² (repr, Grand Rapids: Eerdmans, 1975) 228; 다른 견해로는 C. K. Barrett,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⁹ (London: S. P. C. K., 1972) 405f.

45) C. van der Waal *Liquidatie der Reformatie* (Enschede: Boersma, 1966) 38ff; *Wat staat er eigenlijk?* (Goes: Oosterbaan & Le Cointre, 1971) 86f.; C. Trimp, *Betwist schriftgezag. Een bundel opstellen over de autoriteit van de Bijbel* (Groningen: Vuurbaak, 1970), 136ff.

3.

롬8:16은 J. Wesley가 성령의 증거에 관해 자주 사용한 본문이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기서 문제는 동사 *συμμαρτυρεῖν*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이다. 웨슬리는 “그 같은 성령이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번역한다. 그는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전치사 *σύν* 의 의미를 다만 ‘동시에’라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동시에 증거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많은 본문들과 진실한 기독교인의 체험을 볼 때 모든 신자 안에서 성령의 증거와 자신의 증거가 있다고 웨슬리는 말한다.⁴⁶⁾

그러나 헬라어 사전을 볼 때 *συμμαρτυρεῖν* 과 여격(dative)의 용례 상 웨슬리가 제시하는 의미 곧 ‘어떤 사람에게 증거한다’와 ‘어떤 사람과 동시에 증거한다’는 두가지 모두가 헬라어에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전에서 제시하는 용례는 1. 어떤 사람과 더불어 증거한다. (to bear witness with) 2. 어떤 사람을 지지하여 확증한다. (to bear witness in support)이다.⁴⁷⁾ 첫째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증거한 사실을 이미 언급한 본문에서 사용된다. 즉,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심판자 앞에서 증거한 후에 다른 사람이 *συμμαρτυρεῖν* 하면 그 의미는 둘째 사람이 첫째 사람과 더불어 증거한다는 뜻이다. 두번째의 의미는 재판적 문맥 밖에서 사용된다. 즉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말할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συμμαρτυρεῖν* 하면 그 의미는 둘째 사람이 언급된 의견을 확증한다는 뜻이다. 신약에는 *συμμαρτυρεῖν* 이란 동사가 로마서에 세 번 밖에 나오지 않는다. 2:15에는 여격 없이 나오지만 9:1에는 8:16과 같이 여격과 함께 나온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여기서도 심판자 앞에서 증거한다는 의미는 불가능하고 대신에 양심이 저를 지지하여 확증한다는 의미가 더 잘 맞는다. 마찬가지로 8:16에서도 어떤 사람과 더불어 증거한다는 첫째 의미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1. 우리 영이 증거자로 직접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며, 2. 우리 영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을 증거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본문에도 어떤 사람을 지지하여 확증한다는 두번째 의미가 보다 알맞다. 그러므로 롬8:16을 번역해 보면, “그 같은 영이 우리 영을 지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한다”는 것이 된다.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16절이 15절과 관련하여 우리가 양자의 영 곧, 성령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을 본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를 지지하여 확증하기 때문이다.

46) *The Works of John Wesley* 3, V, 113.

47) H. Strathmann, art. “*martus*” ktl, in *TWNT IV* Stuttgart: W. Kohlhammer, 1942) 515; W. Bauer,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Durchgesehene Nachdruck der fünften Auflage; Berlin: Alfred Töpelmann, 1963) 1541; H. G. Liddell, R.Scott, *A Greek-English Lexicon* (repr. Oxford: Clarendon Press, 1976) 1677.

본문은 그 확증하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있음을 언급하지 않는다. 또 그 확증은 신자 중 어떤 사람들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신자를 향한 것이다. 또 그 확증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속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다.⁴⁸⁾ 성령이 어떻게 확증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한 대답을 여기서 찾을 수 없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성령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성령님이 성경과 성경적 설교를 통하여 확증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웨슬리가 말하듯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성령의 증거에 대한 칼빈의 의견을 뒷받침해 주는 본문인 것도 아니다.

4.

고전2: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대한 주석에서 칼빈은 말하기를 “여기서 사도는 성령님이 증거하심으로 그들이 영원한 소망을 받기 위하여 양자로 삼아진 것을 확실히 알리고, 택함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것을 일반적으로 선언한다”라 하였다. 이를 볼 때 칼빈은 여기 나오는 ‘우리’란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보고 있다.

하지만 6-16절의 본문에 ‘우리’란 다른 사람을 언급하는 말이다.⁴⁹⁾ 2:1-5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나와 너희’에 대해서 말하고 3:1이하에도 또 다시 ‘나와 너희’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 중간에 있는 6-16절에서는 복수 ‘우리’란 말을 쓰고 있다. 그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교인들을 의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2:6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할 때 온전한 자란 믿는 자를 의미할 수 밖에 없다. 그 온전한 자들이 믿는 자 모두이나 아니면 믿는 자 중의 특별한 그룹을 가리키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다르겠지만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우리’란 그 믿는 자와는 다른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의미한다. 두번째 이유는 2:16과 3:1 간의 연결은 ‘나도’(*καγώ*)인데 이는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말이며, 이로 볼 때 2:6-16까지의 우리란 사도 바울 자신이 속하는 사도들의 그룹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럼 10절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할 때 이 말은 특히 사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받은 계시를 의미하며 오직 간접적으로만, 다시 말해, 사도들의 문서를 통하여서만 현대의 신자들이 받게된 계시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12절에 일반적 성령의 증거는 언급되지 않고 사도들이 특별하게 받은 성령의 도움이 언급된 것이다.

48) 여기에 나오는 동사 *συμμαρτυρεῖ* 는 현재형이기 때문이다.

49) 참고 W. C. Kaiser jr, *A Neglected Text in Bibliology Discussions: 1 Corinthians 2: 6-16*, i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XLIII, 2 (1981) 301ff.

고전2:14-15에는 주어가 바뀌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란 *ψυχικὸς ἄνθρωπος* 이고 이의 반대말이 15절의 *πνευματικός*, 신령한 자이다. *ψυχικὸς ἄνθρωπος* 란 *ψυχή*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ψυχικός* 는 신약에서 두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의 생명(고전15:44) ② 창조된 후 죄와 타락으로 변화된 생명(약3:15, 유19)의 두가지이다. 고전 2:14에는 죄의 영향을 받은 생명(본성)이 있는 사람의 의미이다. 왜냐하면 1. 이 의미가 문맥 1:18-25에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며 2. 유19에 동일한 대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된 성령님이 계시하신 것을 말한다. 그 계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계시하신 것이 미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사람은 그 계시를 잘 모른다. 사실 그 사람은 계시를 알지 못한다.

왜 그러냐하면 계시가 “영적으로라야 분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용된 *ἀνακρίνει* 라는 동사는 Liddell-Scott에 의하면 ‘면밀히 살피다’(examine closely) ‘조사하다’(inquire into)의 뜻이다.⁵⁰⁾ 하지만 이 의미는 성경의 여러 본문에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전14:24에서 그 의미는 검사함으로써 그 참된 가치를 매김을 뜻한다. 동일한 의미가 고전4:4에도 해당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살피기 때문이다. 고전4:4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완전하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같은 의미는 고전2:14, 15에도 잘 맞는다. 신령한 자는 그 모든 것 즉,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치신 것을 잘 *ἀνακρίνει* 곧, 그것의 본질적 가치를 잘 깨닫는다는 것이다. 또 *πνευματικός* (신령한 자)는 성령의 영향을 받는 자를 가리킨다. (참고, 유19)

그러므로 고전2:14, 15에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성령의 증거의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곧 성령의 말씀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오직 영적으로만 즉, 성령의 인도로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곧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시하신 것임을 알게 된다. 또한 성령님을 받은 자만이 그 모든 것을 잘 평가하고 받아 들이게 된다. 성령의 증거란 교리는 고전2:14, 15에 직접 근거한다.⁵¹⁾

5.

고후1:22에 근거하여 칼빈은 성령님을 인침과 보증으로 불렀다. (I vii 4) 하지만 그 본문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라

50) H. G. Liddell, R. Scott, *A Greek-English Lexicon*, 109.
 51) 참고 J. Murray, *The Attestation of Scripture*, in *The Infallible Word: A Symposium by Members of the Faculty of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3* (repr.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1980) 47f.

고 할 때, 바울은 성령이 보증이라고는 말했지만 인침이라고는 말하지 않은 것 같다. 사실 칼빈은 성경을 잘 이해했다. 엡1:13과 4:30에 같은 동사가 나오며, 이것이 성령에 적용되므로 고후1:22의 ‘인치시고’도 성령을 통하여 인치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에 언급된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21절에서 강조점은 하나님이 우리 신앙 생활의 모든 것을 이룩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에 인내를 주시는 분이요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받으신 같은 기름(성령, 참고 눅4:18, 행10:38, 요일2:20, 27)을 부으시는 분이다. 22절을 번역하면 “이는 바로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겠다.⁵²⁾

인치다란 행동의 의미는 여러가지인데 여기서는 소유물의 표시로서 성령을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⁵³⁾ 또한 우리가 보증으로서의 성령을 받았다는 표현은 우리가 약속된 또 다른 것들을 받을 것임을 내포한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인 표시이며 또한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받을 것의 확증이다.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때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역하고 계신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사역인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성령의 증거가 여기에서는 명백하게 언급되지 않고 다만 이 본문의 강조점은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란 점이다.

6.

요일 2:20-27에 나오는 *χρίσμα* (기름부음)란 무엇을 말하는가?⁵⁴⁾ Liddell-Scott사전에 의하면 *χρίσμα* 란 말은 ① unguent, oil ② anointing, unction ③ coating of wall, plaster를 의미한다.⁵⁵⁾ 본문이 주택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③의 의미는 적합치 못하다. ①과 ②간의 차이는 ①이 어떤 사물을 의미하는데 반해 ②은 행동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χρίσμα* 와 관련된 동사들(—를 가진다, 20절, —를 받았, —가 가르친다, 가르쳤, —이 거하다, 이상 27절)을 볼 때 *χρίσμα* 가 행동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름부음’이란 번역보다 ‘부은 기름’이 더 나은 번역이다. 그러나 어떻게 ‘부은 기름’이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구약(삼상16:13, 사61:1)과 신약(눅4:18, 행15:18, 참고 고후1:21)을 볼 때 성령으로 부음 받을 수

52) 22절의 *ὁ καί* 는 ‘바로 그가’로 번역해약 하고, 참고 M. Zerwick, *Biblical Greek* (transl. J. Smith, Rome (1963) 1979) §463-465; F. Blass, A. Debrunner, R. 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14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6) §442, 42. *σφραγισσάμενος* 와 *δοῦς* 의 분사형은 여기서는 이유를 뜻한다.
 53) G. Fitzler, art. “*sphragis*” ktl, in *TWNT VII* (Stuttgart: W. Kohlhammer, 1964) 950.
 54) 이 본문에 대한 설명으로 참고, 이승미 “Interpretation of *χρίσμα* in I John 2: 20, 27” 이근삼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부산: 고신대학출판부, 1984, p. 579ff.
 55) H. G. Liddell, R. Scott, *A Greek-English Lexicon*, 2007.

있음을 알게 된다. 요일2:20-27의 본문에도 부은 기름이란 성령을 의미한다.

그 성령이 무엇을 행하는가에 대해 사도 요한의 대답은, 성령의 계심의 결과는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는 것”(20절)이고 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27절)이다. 당시의 이단자들은 새로운 교리를 전파했지만 믿는 자들은 그들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성령이 믿는 자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친 대로 ‘그 안에’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한다. (27절) 이를 볼 때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는 것”(20절)은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일의 결과이다. (27절)

그러나 이때 요한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24절 마지막 부분과 27절 마지막 부분은 바로 같은 것을 말한다. 즉 24절에 의하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는 것은, 27에 의하면, “성령이 가르치고 있으며 또 가르쳤던 것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24절의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것”은 사실은 27절의 “성령님이 가르쳤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사도 요한은 믿는 자들이 그 복음을 사도들의 전도를 통하여 들은 사실을 자주 강조한다(1:1-3, 5, 2:4, 6, 7, 21, 3:11, 16) 그리고 우리는 그 내용을 성경에서 받았다.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이 2:20-27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 전파되고 기록된 복음을 통하여 성도들을 가르쳤고 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의 결과로서 성도들은 모든 것을 알고(20) 따라서 이단자들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27) 그러나 이 본문 속에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여는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요일5:7(헬라어 원문에 6절)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라고 말한다. 그 증거의 내용은 5절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 또 성령이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할 때 그 대답은 사도들의 말 또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통하여서이다. 그 이유는 8절에서 찾을 수 있다. 8절에 의하면 증거하는 것이 셋, 즉 성령과 물과 피이다. 여기서 물이란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말하고 피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한다.⁵⁶⁾ 그 사건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 그러나 이 두 사건들도 우리는 오직 목격자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증거도 그들을 통하여 알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성령의 증거임을 깨달아야 하겠다.

하지만 증거한다는 말이 사람을 믿게함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증거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증명을 제시하는 것이긴 하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임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10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엄중한 증거를 듣고서도 그것을 부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본문은 성령님이 인간의 마음 속에 확신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

56) J. E. Huther, *Kritisch exegetisches Handbuch über die drei Briefe des Johannes*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855) 197ff; B. F. Westcott, *The Epistles of St. John* 3 (repr. Grand Rapids: Eerdmans, 1974) 183.

IV. 결 론

1.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 본 본문들을 개괄해 볼 때, 성령의 증거를 증명하기 위하여 인용된 본문들 중 많은 본문들이 성령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는 사역을 가리키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요16:14-16과 고전2:10-12에 나오는 성령의 사역은 모든 신자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계시를 주는 것이다.

사59:21은 성령님이 말씀과 관련된 것임과 이스라엘이 이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바로 무엇을 행하시느냐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말하지는 않는다.

요16:8-11, 롬8:16, 요일2:20-27, 5:6에는 성령의 여러가지 행동이 지적되고 있다. (책망하다, 확증하다, 가르치다, 증거하다) 이 동사들은 믿게하는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요16:8-11, 요일2:27, 5:6의 본문에서 지적된 행동이 사람이 믿는 일의 조건이 됨을 말 할 수 있다. 성령의 증거란 교리가 진실한 것이라면 이 본문들이 성령의 증거하시는 사역의 배경을 이룬다고 말 할 수 있겠다.

고후1:21, 22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세우시고 지켜 가시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을 성령과 관련 시키고 있다. 성령의 증거란 교리가 진실한 것이라면, 그 교리는 여기에도 포함적으로 나타난다.

오직 고전2:14, 15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이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다.

2.

이상에서처럼 말하면 성령님이 성경의 신적 원천을 믿게 하시는 사역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변적 사건으로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사역이며 (예, 행16:14, 엡2:8, 빌1:29) 특별히 성령의 사역이라고 강조한다.

요3:3-8에는 증생에 관하여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한다. (6절, 참고 8절)

고전12:3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고후4:13에는 성령이 믿음의 영으로 불리워지고 있다.⁵⁷⁾

57) 한글 번역에는 *πνεῦμα* 를 마음으로 번역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그러나 동사 ‘가진다’(έχω)란 말은 *πνεῦμα* 가 성령을 의미함을 밝히며 (H. Hanse, art. “echoo” ktl., in *TWNT II* (Stuttgart: W.Kohlhammer, 1935) 819) 행6:5, 11:24에 나오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이란 표현도 *πνεῦμα* 를 ‘영’으로 번역해야함을 지지한다.

살전1:5에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할 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이 일어남을 말해준다. (참고, 6절 고전2:4, 5)

딤후3:5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증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고 말한다.

벧전1:2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 서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쓰고 있다. 순서를 볼 때 성령의 역할은 순종 등을 이루시는 일이다.

그래서, 믿음이 특별히 성령의 사역임을 말할 수 있다.

3.

한편 위에 언급된 본문들은 성령님이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믿게 하시는 사역을 말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 본문들이 어떻게 성령의 증거라는 교리를 증명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성경이 하나님 구원, 성화, 교회 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에 대한 교리도 포함한다는 것이다.⁵⁸⁾ 우리가 성경이 계시하는 내용을 믿어야 한다고 할 때 성경에 대한 성경적 교리도 받아 들여야겠다.

구약에 있어서 모세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한 율법과 규칙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했다. 예언자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시편과 잠언 등의 본문도 하나님의 영으로(삼하23:1-3), 또 하나님의 지혜로(잠8) 일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미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 이처럼 신약은 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또 인용했다.⁵⁹⁾

신약에 있어서는 사도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요14:26) 즉 복음서를 만들기 위해, 또한 새로운 것을 계시하기 위해(요16:13) 즉, 서신서를 만들기 위해 성령을 특별히 받았다. 이 때문에 누가(1:1-4)와 요한(20:31, 요일1:1-3, 계22:18, 19)은 그들이 쓴 복음서의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편지의 인사말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함을 강조하고 사람들이 그의 말대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 고전7:12, 14:37, 38 살전2:13)

이상을 볼 때,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경의 신적 원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신앙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포함한다. 칼빈이 성령의 증거를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의 구원 등에 관련하여 뿐만 아니라 성

58) H.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I, 371f.; 비고 538, 566f.; B.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ed. S. G. Craig;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9) 114, 208f.

59) 마4:4, 행1:16, 3:18, 21, 4:25, 히1:5이하, 3:7이하, 4:3, 7, 5:5, 6벨후1:21, 참고 B. B. Warfield, 'It says: 'Scripture says: 'God says: ', in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299ff.

경의 원천에 관련하여서도 사용하는 것은 그러므로 성경적이다. (참고, 고전2:14, 15)

4.

칼빈의 입장이 성경적임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칼빈이 사용한 표현이 가장 적절한 문구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칼빈이 만든 성령의 증거란 표현이 하나님이 성경 밖에서 직접 우리 마음 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이 의견을 뒷받침하려고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증거한다’는 동사가 항상 말함을 내포한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는 이유는 칼빈이 그의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 말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칼빈은 ‘증거한다’는 동사가 설득시키는 일 까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요일5:6의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란 본문의 주석에서 칼빈은 “이 표현으로써 신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느끼느냐를(사도는) 가르친다. 즉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납득시키기 때문이다”라고 주석한다. 하지만 요일5장에는 사람들이 그 증거를 부정할 수 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10절) 성령의 증거 그 자체가 납득시킴을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칼빈이 만든 성령의 증거란 표현은 맞지 않는 주석에 근거한다.

또한 칼빈은 어떤 때는 ‘성령의 조명’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이 표현으로써 그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성령님이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의미하지만 오늘날 이 말이 때로 혼동을 일으키므로 보다 확실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성령의 증거란 표현을 사용할 때 칼빈이 뜻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침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I vii 4) 그래서 칼빈이 의도하는 바를 보다 뚜렷이 하자면 성령의 증거 대신에 성령의 내적 납득시킴이란 표현을 사용하면 좋겠다. 성령의 내적 납득시킴이란 성령님이 우리를 성경과 성경적 설교를 통하여 가르치시는 일과 분리하면 안된다. 성령님은 성경 밖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스스로는 성령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말씀과 더불어 또 다른 일 즉 우리를 내적으로 납득시켜야 하는 일을 행하실 필요가 있다. 행16:14의 경우에서 뚜렷이 보는 것처럼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하신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연구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부터 시작하였는데, 그 신앙고백에 사용된 표현이 정확하지 않음을 밝혔다. 놀랍게도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표현은 같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속에 나타남을 본다. 대요리문답 제4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나타난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경과 더불어, 사람의 심령에 증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만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완전히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성장학과의 방법론

김 형 규*

◇ 목 차 ◇

- 서 론
- 본 론
 - 1. 사회적 요인
 - 2. 접근의 어려움
 - 3. 형성 과정
 - 4. 방법론의 문제
 - 5. 교회 성장학이 제시한 2가지 원리
 - 1) 동질성의 원리
 - 2) 수용성의 원리
- 결 론

서 론

교회성장을 위한 과학적인 연구와 접근은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서야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침체해 가는 백인 교회의 회개와 몸부림의 산물이며 교회의 침체라는 문제의 해결을 과학에서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많은 참신함과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복음주의 선교사들의 노력의 열매이며 그 목표가 지상명령(마28. 19, 20) 수행이라는 단일성에 근원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운동이다.

한국교회는 갑자기 돌풍처럼 불어 다치는 이 운동의 물결에 어느 사이에 벌써 휩싸여 있을 뿐 아니라, 이 운동의 이론을 위한 시험대가 되어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운동의 토대가 되는 방법론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한국 교회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교회성장학과는 McGavran을 중심으로한 운동 안팎의 관련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 조교수, 어학전공